

離任辭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洪 性 一



癸酉年 希望에 찬 새해를 맞이하여 高分子同人 會員여러분의 家庭에 無窮한 發展과 幸運이 깃들기를 祈願하는 바입니다.

歲月은 流水와 같이 빨라서 本人이 高分子學會 9代 會長職을 맡은지 1년이란 歲月이 어느덧 흘렀습니다. 其間 學會發展을 위하여 積極의인 參與와 熱과 誠을 다하여 後援하여 주신 任員 및 會員여러분께 깊은 感謝를 드리며 또한 在任期間동안 계획된 學會事業을 원만히 遂行할 수 있었던 것을 感謝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年間을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는 高分子學會 會員의 積極의인 參與로 1976年 學會가 創立된 以來 가장 많은 學術論文發表와 特別講演을 가진 發展의인 한해였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政府 當局에서는 2000年代 先進 7個國 突入을 目標로 G7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획기적 사업을 추진하는 첫해였고 韓國科學技術의 새로운 跳躍을 期하는 重要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科學技術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莫重한 責任을 지우며 장래를 거는 마당에 우리 高分子學會 會員도 새로운 賞悟와 叡知를 모아 同參하여야 하는 時點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야 말로 다른 나라의 科學技術의 複製를 벗어나 우리나라 固有의 技術을 創出하는 New Technology 時代를 열어야 하는 時期에 到達하였다고 봅니다.

우리 學會 運營에 있어서는 작년 2월에 첨단신소재, 기능성전자재료를 다루는 分子電子學 部門委員會가 出帆하였고 또한 高分子學會의 國際的 位相을 높이기 위하여 英文誌 發刊을 目標로 英文誌 편집위원회를 構成, 현재 創刊號 發刊 準備作業을 進行中에 있습니다.

또한 學會 支部에서는 支部活性化를 위하여 특별세미나, 지부특호기술지발간, 국제교류세미나, 친목운동회 개최 등 활발한 연구활동이 展開되고 있으며 支部長 및 支部任員들의 勞苦에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學會運營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은 이제 學會規模가 커지고 學術論文發表 件數가 增加함에 따라 總會 및 學術發表場의 選定이 如意치 않다는 점이다. 가까운 日本과 같이 몇십개의 세미나실을 갖춘 Conference Center 같은 것이 建立되었으면 하는 希望입니다.

本人이 任期中 좀더 基金을 確保하지 못한점, 學會를 좀더 活性化시키지 못한 점 아쉬움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나 有能한 後任 會長 金殷永 博士님을 비롯하여 活動의인 새로운 任員陳이 構成되어 學會發展에 더욱 拍車を 가할 것으로 期待하여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本學會 發展을 위하여 본학회 부회장으로서 많이 수고하여 주시고 特別 찬조금을 회사해주신 선경화학(주)의 崔俊植 社長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貴重한 時間을 割愛하여 學會發展에 獻身的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崔喆林 專務理事와 幹事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